

代替에너지開發이 시들해지고 있다

두 차례의 石油危機를 겪으면서 활발하게 추진되던 代替에너지開發이 최근의 石油需給완화를 배경으로 시들해지고 있다.

현재 西方先進國의 代替에너지개발계획은 약 절반에 해당하는 總投資예정액 7백억 달러규모의 사업이 지난 1년간에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石油需給의 완화를 배경으로 특히 民間企業의 개발의욕이 감퇴되고 있으며, 그 동안 선진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大型프로젝트도 잇달아 중단 또는 연기되고 있고, 나머지 事業도 계획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그 結果 80年代에 石油에 代替할 새로운 에너지源의 본격생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에너지開發投資의 감소는 先進國의 景氣회복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이른바 「逆오일쇼크現象」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新에너지는 石炭의 液化나 가스化, 오일셸(油母頁岩), 오일샌드(油砂) 등의 개발을 통해 만들어지는 新燃料로, 天然가스와 같은 既存의 代替에너지와는 구별된다. 先進各

國은 79년의 第2次 石油危機 이후 80년대 후반부터 實用化시킨다는 목표하에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총 1천5백억달러 규모의 技術開發事業에 착수했었다.

최근에 中斷된 약 7백억달러의 프로젝트는 대부분이 大型事業으로 石炭液化부문에서는 美國·西獨·日本 3國協力の SRC-II 프로젝트와 國際石油資本인 엑슨그룹을 中心으로 한 美國·西獨·이탈리아·日本의 民間協力에 의한 EDS 프로젝트등 2大事業이 지난 81년에 중단되었다. 石炭가스化部門에서도 美國기업의 2개 사업이 보류되었다.

오일셸, 오일샌드部門에서는 각각 세계최대규모의 民間 프로젝트였던 美國의 코로니·프로젝트와 캐나다의 알샌드·프로젝트가 지난 5월과 4월에 중단되었으며, 이 밖에 美國과 캐나다에서 각각 1개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 8개 사업의 투자규모만 해도 4백2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도 수십건의 中小事業이 중단되었다.

이와 같이 代替에너지開發事業이 遲遲不進한 것은 國際

原油價格의 상승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新에너지도 開發코스트가 늘어나 原油價格이 80년 가격으로 배럴(1백59ℓ)당 50달러수준이 되지 않으면 經濟性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石油需給의 완화로 原油價格은 배럴당 30달러線에서 머물고 있다. 中東情勢의 불안정을 감안하면, 中期的으로는 石油情勢가 또 다시 혼란할 우려도 있으나, 특히 민간기업들의 경우는 「애매한 原油價格상승전망을 토대로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各國政府도 재정난으로 에너지 투자에 소극적이다.

IEA(國際에너지機構)는 지난 해, 각국의 開發計劃을 토대로 「80年代末에 新에너지源의 상업생산은 石油換算으로 하루 2백만배럴 전후(현재 先進主要國 석유輸入量의 10%弱)에 이를 것」으로 試算했다. 그러나 최근의 잇따른 중단으로 新에너지源의 상업생산은 9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